

보성군, 녹차 전남 Top 경영모델 실용화사업 연사회 개최



▲녹차전남Top경영모델 실용화사업 연사회 개최. 백록다원에서 전남도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녹차전남Top경영모델 실용화사업 연사회를 개최했다.

승용 수확기 활용한 찻잎 적기 수확 및 노동력 절감 선보여

보성군은 지난 15일 백록다원에서 전남도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녹차 전남 Top 경영모델 실용화사업 연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사회에는 차 재배 농가와 전남농업기술원,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주요 기술 설명 및 현장 시연이 진행됐다.

올해 실용화사업의 핵심은 승용 수확기를 활용한 찻잎의 적기 수확 및 노동력 절감과 찻차 제조기·초청기 도입을 통한 가공제품 다양화에 있다.

특히, 승용수확기를 활용할 경우 첫물차 기준 1헥타르(ha)

당 수확 인력을 기존 20명에서 2명으로 줄여 인건비를 약 96%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균일한 찻잎 품질 확보를 통해 수확량 및 상품률 향상 효과도 기대된다.

더불어, 전통 발효차인 떡차(餅茶) 및 블렌딩차 제조 기술을 접목해 보성녹차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6차 산업화 기반을 강화한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군은 이번 경영모델을 통해 1ha당 노동 투입시간 약 90% 절감, 농가 소득은 3,500만 원에서 4,600만 원 수준으로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성군농업기술센터 김숙희 소장은 "해마다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은 보성 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한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생산부터 가공·유통까지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영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명덕 기자
press582@nonguplimes.com



▲벼피해영농현장방문

삼척시, 가을장마 피해 벼 수확 앞둔 농가 방문

피해 농가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 점검

삼척시는 10월 16일 근덕면 매원리와 교가리 일원에서 최근 가을장마로 인한 벼 도복(倒伏, 작물 쓰러짐 현상)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시장을 비롯해 농업기술센터 소장, 기술보급과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근덕면장 등 관계 공무원과 벼 재배 작목반 회원 및 선도농업인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시는 장기간의 가을장마로 인해 벼 생육이 부진하고 쓰러짐과

수발아(이삭 발아), 깨씨무늬병 발생 등이 잇따르자,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관내 벼 재배면적은 총 538ha로, 이 가운데 미수확 면적이 328ha(61%)에 달하며 도복 피해가 23.6ha, 수발아 피해 25ha, 깨씨무늬병 피해가 40ha로 추정된다. 특히 쓰러진 벼에서는 수발아가 심하게 발생해 일부 품종은 수매가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해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신속히 피해 접수와 조사를 실시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가입 농가는 즉시 수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기상재해에 강한 조생종·중생종 품종 확대 재배를 추진하고, 토양검정을 통한 적정 시비(施肥) 등 도복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깨씨무늬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규산질비료 및 완효성비료 사용 등 토양개량 중심의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재해피해 농가에는 농약대 및 생계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이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화성특례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나서

화성특례시가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수산시장, 대형마트, 음식점 등 수산물 유통 및 소비 현장 전반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중점 점검 품목은 활가리비(일본), 활참돔(일본), 냉장명태(일

본), 활우렁छ이(일본), 활뱀장어(중국, 모로코), 활대게(러시아), 냉동갈치(일본) 등으로, 화성시 자체 계획에 따른 기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반은 각 업소를 방문해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온라인마켓이나 배달앱 등 전자매체에 등록된 상품 정보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도 병행 점검한다.

시는 단속 결과에 따라 위반 업소에 대해 형사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지도를 통해 즉시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 후에도 해당 업소들의 이행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김조항 농업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농축수산물 전반에 걸쳐 원산지 표시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지도 점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충북농기원, 잦은 강우에 따른 농작물 관리 철저 당부

충북농업기술원은 가을철 잦은 강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사전 대비와 신속한 사후관리를 통해 농작물 피해 최소화해 나설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가을철에도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잦은

강우가 이어지면서 밭 침수, 병해충 발생, 과수 열과 등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충북지역은 9월 평균 강우일수가 15.8일로 평년 9.4일보다 6.4일이나 잦았으며, 10월에는 평년 6.3일인데 15일 기준 2배에 달하는 10.6일

로 강우 일수가 기록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잦은 호우로 인한 피해 농작물을 신속 진단하여 생육 회복을 위한 기술지도를 추진 중이며,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는 작목에 대해서는 긴급방제 기술

상담과 방제요령에 대해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충북농업기술원 여우연 기술보급과장은 "가을철 잦은 호우는 수확을 앞둔 생육후기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농업인들께서는 배수로 정비와 병해 예방을 사전에 철저히 하여 농가소득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양파밭을 초도화시키는 주요 병해인 '흑색썩음균핵병'을 해조류 등에서 추출한 친환경 방제제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흑색썩음균핵병은 양파 뿌리와 인경(줄기) 부위에 발생해 생육을 멈추게 하고 수량을 급감시키는 치명적인 병해로, 일단 발병하면 수확 자체가 어려운 정도로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 병에 감염된 양파는 뿌리 부분에 검은색 균핵이 형성되고 지상부가 시들어 진단이 쉽지만, 확산 속도가 빨라 예방 및 초기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양파 흑색썩음균핵병 친환경 방제제는 15종에 달한다.

도 농업기술원은 이들 친환경 방제제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양파 포장에서



▲양파 흑색썩음병

시험을 실시했다. 시험은 양파 옆 흙에 7일 간격으로 5회에 걸쳐 각 방제제를 살포(토양관주)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결과 해조류와 미생물 등에서 추출한 방제제 3종이 흑색썩음균핵병 발생을 평균 79%까지 줄여주는 것으로 확인했다.

도 농업기술원 백승빈 연구사는 "흑색썩음균핵병 친환경 방제

제가 20종에 달하고 있으나, 해조류와 미생물 추출 물질을 활용한 방제제가 높은 효과를 보였다"며 "양파 친환경 재배 농가가 방제제를 선택할 때 이 물질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도 성공 영농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보령스마트팜,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신제품 3종 출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보령스마트팜"은 "농업경영체" 등록 후,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새싹삼 밀크씨슬 홍삼플러스, 산양유 피쉬콜라겐 프로바이오틱스, 콜레우스 차전자피 분말 3종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보령스마트팜"은 충남 보령 출신의 이행수 대표이사가 2022년 5월에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이 대표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던 중, '우리 것을 만들어 팔아보자'라는 신념으로 새싹인삼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새싹인삼은 수소물과 LED 재배로 키워 농약 없이 재배한 웰빙 채소로, GAP 인증을 획득해 소비자들께서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온가족 새싹삼 밀크씨슬 홍삼플러스, 산양유 피쉬콜라겐 프로바이오틱스, 콜레우스 차전자피 분말

이 제품들은 자연 유래 성분을 바탕으로 바쁜 현대인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개발되었습니다.

보령스마트팜은 앞으로도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K-웰빙푸드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이번 신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령스마트팜 공식 홈페이지 www.bsmtf.com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 상담실 041-931-1373

www.bsmtf.com

농업회사법인
(주)보령스마트팜

